

감사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가 한 기도  
나는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속여 품고만 잊어도  
이루어주신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왕상 9:3

#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November 13,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누가복음 8:4-15 <b>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마음의 상태</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591장 - 저 밭에 농부 나가 (통일찬송가 310장)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유덕하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삶과 세상으로	* 찬 송 / 430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 1,3절 (통일찬송가 456장)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호세아 2:8-14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 우상숭배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추수감사주일** 다음주(11/20)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 찬양집회/찬양사역 세미나 결산과 평가** 다음주일 오후에 가집니다.  
(주관: 행정사역)
- 기도 가정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성장, 평안과 건강, 사업과 직장)
-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 주일 오전 11:00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 주일 저녁 8:00 / 인물 성경공부
  - 화요일 오전 10:00 / 교회 성장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11월의 사역 - 소금/빛 된 주간(13-19) 추수감사주일(20)  
선교 주간(20-26) 선교주일 (27)

♥0000 000000♥ 김지수(2) 박진성(5)

### 기도제목

- 학생들의 학업과 전 인격적인 성장
-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건강과 평안
-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천국을 향한 소망과 평안
- 교회 사역의 변화와 건강한 성장
- 중고등부 전임사역자 청빙과 Youth Ministry 성장을 위해

###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1/6	11/13	11/20	11/27
	최내권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11/6	11/13	11/20	11/27
	오정은집사/유덕하집사		최선윤집사/구 민집사	
주일안내위원	11월			
	구 민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가진 것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자** / 누가복음 8:1-3

섬김의 교회 성도는 그 이름처럼 잘 섬기려고 노력한다. 앞으로도 각자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 자신의 소유로 기쁨과 자원하여 섬겼던 여인들처럼 우리의 섬김도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여인들은 섬김을 멈추지 않았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섬김으로써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 않았던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을진대 당연히 끝까지 섬겨야지 않겠는가. 섬기다 보면 힘이 들어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설 곳은 천국 한 곳뿐이다. 그 때까지 쉬지 않고 함께 섬기자. 내가 가진 것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섬겨야 한다.

###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마음의 상태 / 누가복음 8:4-15

사람의 마음상태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자

길가 - 밭과 밭의 경계, 굳은 땅 / 씨가 노출되어 새의 모이가 된다.

돌밭 - 잘 개간되지 않은 밭 / 흙이 깊지 않은 밭 / 지열 때문에 싹은 빨리 나지만, 양분과 수분이 부족해 시든다.

가시밭 - 싹이나 자라지만, 성장을 위한 양분과 햇볕의 부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옥토 - 잘 개간되어 열매를 맺는다.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도록 더 넓은 마음이 필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인내하며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성도가 되자.

###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마음의 상태 / 누가복음 8:4-15

사람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며, 전도자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길 가에 뿌려진 경우는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탄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밟고 다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씨앗이 뿌려져도 땅 위에 노출되고, 새의 모이가 된다.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이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닌,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을 갖자.

돌 위에 떨어진 경우는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약해 환난이나 어려움이 앞에 생명력을 잃는 경우이다. 암석지반 위에 밭을 만들면, 밭의 흠 깊이가 유난이 얇은 곳이 생긴다. 바위의 온기 때문에 짙은 뿌리 나지만 흠과 수분의 부족으로 강한 햇볕 아래 바로 시든다. **쉽게 복음을 받지만 작은 시련이 앞에 바로 넘어지는 경우이다.**

교회는 처음부터 핏박 속에서 성장했다. 때로는 생명으로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이 핏박 앞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 앞에 신앙을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이다.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밭에 뿌려진 씨와 엇비슷하게 성장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떨기의 그늘과 부족한 양분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는 신앙의 성장을 막는 모든 요소를 뜻한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였을 때, 아아니아와 삽비라 역시 여분의 재산과 자본을 가진 성도는 교회에 가져와 필요한 성도가 사용하도록 나누었다. 그런데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함으로 벌을 받았지 않는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이다.** 잡초가 없이 충분한 수분과 햇볕이 제공되는 옥토이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를 뜻한다. 당연히 나타나는 고난까지 이기고 인내할 때 결실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소유를 통해 섬겼던 여인들이 그렇게 끝까지 열매를 맺어 믿음의 본과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 바울도 딱딱하게 굳은 길 가와 같은 시절, 베드로도 돌밭과 같은 시절, 마가도 가시떨기와 같은 시절을 지냈다. 우리 역시 그렇다. 사탄과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딱딱한 마음, 세상 염려와 근심 앞에 믿음을 잃던 가시밭과 같은 마음상태, 인내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옥토 같은 믿음, 모두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해, 또한 서로를 향해 좀 더 넓은 마음을 갖자. 자신과 서로를 좀 더 용납하자.

자신이나 형제자매를 가시밭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비하하거나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옥토로 변화되도록, 열매를 맺도록 착한 마음과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왜 이러실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생각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다가 주님이 깨우쳐주시는 듯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장로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셔서 엄청나게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 장로님의 이전 모습을 몰라서 얼마나 많이 변화셨는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 점을  
살피지 않고 그 분을 선불리 비판했다면 관계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집니다.

그 점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은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를 예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그 종을 붙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성장시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롬 14:4)

어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혼할 때 "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리라"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사모님과 크게 다투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목사님 자신이  
잘못했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존심을 죽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파르르 떨며 "용서 못해요!" 하고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용서하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모님의 말은 비수처럼 목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을 진짜 믿어?” 사모님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뒤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놔두실까?  
여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용서해주구려.” 그때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니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고치실 수 없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면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니 그 종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친히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물음에 답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서 사고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슬픈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는 더 더욱 행동 전에 기도하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묻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마음.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생각나게 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도하면 어떨까요? 생명이고, 빛이시고, 유일한  
같이신 예수님을 만나도 좋아요. 그것이 진정한  
치유니까요.

김유림 작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에베소서 4:31-32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과  
같이 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과  
같이 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과  
같이 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과  
같이 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과  
같이 하라.”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8:0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TUESDAY 10:00 A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